

膀胱 津液과 氣化에 關한 考察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 한국전통의학연구소²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³

송지청^{1, 3} · 금경수^{1, 2, 3} · 엄동명^{1, 2*}

A Review on the Fluid and Humor[津液] and Gi Transformation[氣化] in Bladder[膀胱]

Song Ji-chung^{1, 3} · Keum Kyung-soo^{1, 2, 3} · Eom Dong-myung^{1, 2*}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³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onceptions about functions of bladder in Oriental Medicine are focused on excretion of urine, such as 『Somun(素問)』 「Yeong-ranbijeonron(靈蘭秘典論)」. However, functions of bladder cannot be in those.

In Oriental Medicine, there are sentences in 『Naegyeong』, the fluid and humor is dispersed to whole body. It means that bladder has a function by reabsorption of the fluid and humor in metabolism with gi transformation, besides excretion of urine. In that reason, I try to find out meanings of bladder's functions in metabolism of the fluid and humor through bibliographic review.

As a result, bladder has a 2 types of function. 1st, it is a excretion of urine that we have already mentioned. 2nd, it is a reabsorption of the fluid and humor.

Key Words : Function, excretion of urine, gi transformation, reabsorption of the fluid and humor, Yeong-ranbijeonron(靈蘭秘典論)

I. 序論

膀胱의 機能에 대하여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 하

* 교신저자 : 嚴東明.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haksan@wku.ac.kr Tel: 063-850-6941
접수일(2010년 4월 20일), 수정일(2010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2010년 5월 19일)

었는데, 이 말은 膀胱이 주로 津液을 갈무리하고 氣化를 통해 그 津液을 排出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氣化를 통해 排出하는 津液을 대부분 小便으로 인식 하였으므로, 이 내용은 ‘수분대사를 통해 津液이 膀胱에 저장되었다가 膀胱의 氣化作用을 거쳐 小便의 形態로 排出된다.’는 내용으로 整理할 수 있다.

그런데 『素問』 「六節藏象論」에서 언급하는 “脾胃 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

糟粕 轉味而入出者也”라는 내용을 고려한다면 膀胱이 단순히 氣化作用을 통해 小便의 形態로 津液을 排出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脾胃를 비롯한 六府에서 벌어지는 消化過程에서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기 때문에 脾胃와 더불어 ‘倉廩之本’이라 하고 있다.

脾胃에서 벌어지는 飲食物의 消化吸收 기능에 대하여나, 水穀에서부터 생성된 津液의 全身 散布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룬 기존의 研究들로는 백상룡¹⁾, 오재근²⁾, 유정아³⁾ 등의 研究들이 있고, 津液代謝 異常으로 惹起되는 병리적인 觀點을 다룬 연구로 허준⁴⁾ 등의 연구가 있어서 津液을 排泄하는데 膀胱이 어떤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지, 津液의 生成과 體內 運行, 膀胱 津液을 小便으로만 制限할 수 없다는 등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胃에서 大小腸으로 전달된 飲食物이 淸濁으로 分別된 후 津液의 形態로 膀胱에 모여, 어떤 過程을 거쳐 체내로 再吸收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臟腑가 어떤 役割을 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가 없었다. 일전에 拙稿⁵⁾에서 大小腸에서 벌어지는 淸濁分別 過程으로 통해 精微物質이 再吸收와 排泄로 나뉘는 過程을 살펴보았는데, 膀胱에서 벌어지는 排泄과 再吸收 機能에 대해서는 言及하지를 못하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飲食物이 體內로 들어와 胃, 小腸, 大腸을 거쳐 膀胱으로 轉輸되어 排泄되는 過程中, 膀胱에서 벌어지는 精微物質의 吸收와 小便의 排泄過程을 ‘膀胱津液과 氣化’라는 觀點에서 『黃帝內經』을 포함한 歷代 醫學文獻을 조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論

1. 膀胱 津液과 氣化에 대한 『黃帝內經』과 註釋家들의 認識

膀胱 津液과 氣化에 대한 『黃帝內經』에서의 言及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靈蘭秘典論」: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⁶⁾

「六節藏象論」: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 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⁷⁾

「經脈別論」: 飲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⁸⁾

「宣明五氣」: 膀胱不利爲癰 不約爲遺溺⁹⁾

「氣厥論」: 胞移熱於膀胱則溺血¹⁰⁾

「咳論」: 膀胱欬狀 欬而遺溺¹¹⁾

『靈樞』「本輸」: 膀胱者 津液之府也¹²⁾

「營衛生會」: 故水穀者 常并居于胃中 成糟粕 而俱下于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¹³⁾

「九鍼論」: 膀胱不約爲遺溺¹⁴⁾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膀胱이 州都之官으로서 津液 貯藏과 氣化에 關與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王冰은 膀胱氣化의 氣는 氣海로써 化되면 便이나온다고 하여, 膀胱津液은 小便의 前驅物質이며 氣化는 小便排出의 過程이라고 認識하였다¹⁵⁾. 馬蒔, 張

6) 黃帝內經素問校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29.

7) 黃帝內經素問校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50.

8) 黃帝內經素問校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309.

9) 黃帝內經素問校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332.

10) 黃帝內經素問校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490-491.

11) 黃帝內經素問校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98.

12) 靈樞經校釋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62.

13) 靈樞經校釋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62.

14) 靈樞經校釋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09.

1) 백상룡. 水液疾患의 病機 및 治療原則에 대한 비교고찰 -東醫寶鑑의 編制를 중심으로-. 한국한의학회지. 2003. 9(1). pp.65-79.

2) 오재근, 윤창열. 水穀의 運化와 배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4).

3) 유정아, 장우창, 정창현.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설명모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4) 허준, 최승훈, 안규석. 津液代謝의 觀點에서 본 小便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 慶熙韓醫大論文集. 1989. 12(1).

5) 송지청, 금경수, 임동명. 大小腸 泌別淸濁에 關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2).

志聰, 張景岳 等도 같은 見解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 『素問』 「宣明五氣」 「氣厥論」 「咳論」 등과 『靈樞』 「本輸」 「九鍼論」 등에서도 小便과 關聯된 腑로 膀胱을 認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素問』 「六節藏象論」에서는 膀胱을 胃와 더불어 倉廩之本으로 認識하여 飲食物의 消化過程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王冰은 水穀의 滋味가 脾胃에 들어가 小腸과 大腸을 지나 三焦와 膀胱을 거치면서 出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⁵⁾.

『靈樞』 「營衛生會」에서는 膀胱과 小便 排出 機能의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言及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楊上善, 馬蒔, 張志聰, 張景岳 등은 이 經文을 註釋하면서 滲入下輸 이후의 과정에 대해 水液이 前陰으로 排出된다고 하여 小便排出과 關聯된 내용으로 認識하였다.¹⁷⁾

이상의 몇몇 篇들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모두 膀胱에서 벌어지는 小便 排出과 關聯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素問』 「經脈別論」에서는 飲食物의 消化吸收에 關여하는 膀胱의 機能에 대해 說明하고 있다. 즉 飲食物에서 만들어진 精氣가 脾의 上輸作用과 肺의 通調水道 및 下輸作用을 거쳐 膀胱에 모이며, 여기서 만들어진 水精이 四方으로 퍼져서 五經과 並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吳崑은 “水飲이 (脾와 肺에 의하여) 이미 상승하고 하강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水穀의 精이 四方으로 散布되어 五臟經脈의 氣도 같은 機轉으로 流行한다.”¹⁸⁾고 하여 膀胱에서 水分이 다시 上輸되어 全身으로 퍼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처럼 『素問』 「靈蘭秘典論」이나 「刺法論」에서 언급한 것처럼 膀胱의 작용은 津液과 氣化에 關여하여 주로 小便을 生成 배출하는 것이며, 註釋家들의 見解도 큰 異見이 없지만, 「經脈別論」에서 언급하

는 것처럼 氣化作用을 통해 津液이 上輸하여 全身으로 퍼지는 과정에도 關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相異한 功能이 모두 膀胱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하지만 統合하여 說明하고 있지는 않으며, 諸註釋家들도 經文에 따른 부분적인 說明만을 하고 있다.

2. 膀胱 津液과 氣化에 대한 『難經』에서의 認識

膀胱 津液과 氣化에 대한 『難經』에서의 言及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難經』 「三十五難」: 小腸者 受盛之府也 大腸者 傳瀉行道之府也 膽者 清淨之府也 胃者 水穀之府也 膀胱者 津液之府也 一府猶無兩名 故知非也 小腸者 心之府 大腸者 肺之府 膽者 肝之府 胃者 脾之府 膀胱者 腎之府 小腸謂赤腸 大腸謂白腸 膽者謂青腸 胃者謂黃腸 膀胱者謂黑腸 下焦之所治也¹⁹⁾

『難經』에서는 『素問』 「靈蘭秘典論」에서처럼 膀胱을 津液之腑로 認識하였다. 이에 대하여 滑壽는 『難經本義』에서 膀胱은 下焦의 다스림을 통해 分別清濁을 主宰한다고 하여, 膀胱에서도 胃도 大小腸처럼 清濁을 分別하는 功能이 있어서 小便뿐만 아니라 체내 必要物質도 生成한다고 認識하였다²⁰⁾. 張世賢 또한 『圖注八十一難經』에서 膀胱의 機能을 따로 설명하지 않고 下焦의 氣化와 關聯하여 清濁을 分別하는 六腑의 하나로 膀胱을 認識하였다²¹⁾.

『難經』에서는 『內經』에서와 같이 膀胱에 대하여 자세하게 言及하지는 않았으나 膀胱을 津液과 關聯된 腑로 인식하고 있으며, 六腑라는 큰 틀에서 膀胱도 清濁을 分別하는 腑로 보았다.

15)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懸吐·解釋. 黃帝內經素問 王冰注.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186.

16)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78.

17)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 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528.

18)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대구. 금성인쇄사. 2001. p.13.

19) 崔昇勳 譯.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4. p.189.

20)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603.

21)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603.

3. 膀胱 津液과 氣化에 대한 『傷寒論』에서의 認識

『傷寒論』에서는 膀胱 機能에 관한 直接的인 說明이 없지만 成無己는 脾約證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辨陽明病脈証並治法第八」：今胃強脾弱 約束津液 不得四布 但輸膀胱 致小便數 大便難 與脾約丸 通腸潤燥²²⁾

즉 成無己는 上輸를 주도하는 脾氣가 弱해지면 津液을 約束하여 津液이 四方으로 布散되지 않고 膀胱으로만 下輸되어 小便數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정상적인 생리활동이 펼쳐질 때는 膀胱에서 津液을 再吸收하는 機能을 發揮한다는 것을 說明한 것이다.

4. 膀胱 津液과 氣化에 대한 기타 醫書에서의 認識

1) 『鍼灸甲乙經』

「營衛三焦 第十一」：故水穀者 常竝居於胃中 成糟粕而俱下於大腸 而爲下焦 滲而俱下 滲泄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也²³⁾

「邪在肺五臟六府受病發咳逆上氣 第三」：腎咳不已 則膀胱受之 膀胱咳之狀 咳而遺尿²⁴⁾

『鍼灸甲乙經』에서는 『內經』의 見解를 좇아 水穀은 消化過程을 거친 物質이 膀胱으로 모이며, 膀胱이 病들면 非正常的인 小便症狀을 나타낸다고 하여 膀胱이 小便과 유관한 腑로 認識하였다.

2) 『素問病機氣宜保命集』

「熱論第四十」：王注曰 膀胱位當孤府 故謂都官 居下內空 故藏津液 若得氣海之氣施化 則溲便注泄 氣海之氣不及 則隱不通 故不得便利也²⁵⁾

22)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219.

23)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72.

24)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559.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는 膀胱은 津液을 藏하는데 이 津液은 氣海의 氣化를 얻으면 小便으로 배출된다고 하여 膀胱津液과 氣化의 過程을 小便排出의 過程으로 認識하였다.

3) 『儒門事親』

「疝本肝經宜通勿塞狀十九」：人之小溲 自胃入小腸 滲入膀胱 膀胱者 脬囊也 氣化則水出莖端 此常道也²⁶⁾

「斥十膈五噎浪分支派疏二十三」：膀胱熱結則津液涸 三陽²⁷⁾既結則前後閉塞²⁸⁾

『儒門事親』에서도 膀胱의 氣化를 통해 津液이 小便으로 排出한다고 하였다.

4) 『脾胃論』

「脾胃虛實傳變論」：飲食入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²⁹⁾

「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飲食入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³⁰⁾

『脾胃論』에서는 『素問』 「經脈別論」의 經文을 引用하여 膀胱津液과 氣化에 의한 上輸에 대해 認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格致餘論』

「鼓脹論」：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輸精四布 五經並行³¹⁾

25)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河北.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11.

26) 張從政. 儒門事親. 河南. 河南科技出版社. 1984. p.141.

27) 여기에서 말하는 三陽은 大腸, 小腸, 膀胱을 말하니, 이 문장 앞에 “三陽者 謂大腸 小腸 膀胱也”라는 句節이 있다.

28) 張從政. 儒門事親. 河南. 河南科技出版社. 1984. p.165.

29) 李東垣.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57.

30) 李東垣.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80.

31) 朱丹溪.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893. p.30.

『脾約丸論』：胃強脾弱 約束津液 不得四布 但輸膀胱 故小便數而大便硬 故曰脾約³²⁾

『格致餘論』 「鼓脹論」에서는 『素問』 「經脈別論」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였고, 『脾約丸論』에서는 成無己의 註釋을 引用하여 膀胱이 단지 小便 排出에만 關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認識을 나타내었다.

6) 『醫學正傳』

『醫學或問』：蓋水穀入胃 其濁者爲渣滓 下出幽門 達大小腸而爲糞 以出於穀道 其清者 倏焉而化爲氣 依脾氣而上升於肺 其至清而至精者 由肺而灌溉乎四體 而爲汗液津唾 助血脈 益氣力 而爲生生不息之運也 其清中之濁者 下入膀胱而爲溺 以出乎小便耳 其未入而在膀胱之外者 尚爲濁氣 既入而在膀胱之內者 即化爲水³³⁾

『醫學正傳』에서는 胃에서 吸收된 水穀之清者가 脾氣에 의해 肺로 上輸되면 肺에서 다시 清濁으로 나뉘어지고 그 중 清中濁者가 膀胱으로 下輸되어 小便으로 排出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다른 곳에서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大小腸에서 膀胱으로 下輸되는 것이 아니라 肺에서 나뉘어진 清濁 가운데 清中濁者가 膀胱으로 下輸되어 小便이 排出된다고 說明하고 있다.

7) 『丹溪心法』

『消渴四十六』：膀胱爲津液之府 所以宣行腎水 上潤於肺³⁴⁾

『丹溪心法』에서는 膀胱이 津液之府이기는 하지만 腎水を 肺로 上輸하는 기능을 언급하여 膀胱이 단순히 小便 排出을 擔當하는 기관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8) 『壽世保元』

『膀胱經虛實病候』：五穀五味之津液 悉歸於膀胱

氣化 分入血脈 以成骨髓也 而津液之餘者入胞 則爲小便³⁵⁾

『臟腑論』：其滋味滲入五臟 其質入於小腸 乃化之 則入於大腸 始分別清濁 渣滓濁者 結於廣腸 津液清者 入於膀胱 膀胱乃津液之府也 至膀胱又分清濁 濁者入於溺中 其清者入於膽 膽引入於脾 脾散於五臟³⁶⁾

『壽世保元』 「膀胱經虛實病候」에서는 津液이 膀胱에 모인 후 氣化를 통해 血脈으로 再吸收되는 과정과 그 나머지가 小便이 된다고 하여 膀胱津液과 氣化를 說明하였다. 또한 『臟腑論』에서는 膀胱의 津液이 다시 清濁으로 分別되어 濁者는 尿中으로 들어가고 清者는 脾氣에 의해 五臟으로 散布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壽世保元』에서는 膀胱津液과 氣化에 대하여 上輸와 小便排出 두 가지를 동시에 說明하고 있다.

9) 『鍼灸大成』

『足太陰脾經穴歌』：其滋味滲入五臟 其質入于小腸 乃化之 至小腸下口 始分清濁 濁者爲渣滓 入于大腸 清者爲津液 入于膀胱 乃津液之府也 至膀胱又分清濁 濁者入于溺中 清者入于膽 膽引入于脾 散于五臟³⁷⁾

『鍼灸大成』에서는 津液이 膀胱에 모인 후 氣化를 통해 血脈으로 再吸收되는 과정과 그 나머지가 小便이 된다는 것으로 膀胱津液과 氣化를 說明하였는데, 이는 『壽世保元』 「膀胱經虛實病候」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10) 『醫貫』

『玄元膚論』：廣腸左側爲膀胱 乃津液之府 五味入胃 其津液上升 精者化爲血脈 以成骨髓 津液之余 流入下部 得三焦之氣施化 小腸滲出 膀胱滲入 而溲便注泄矣 凡胃中腐熟水穀³⁸⁾

『醫貫』에서는 膀胱津液과 氣化에 대하여 小便排出

32) 朱丹溪.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893. p.30.
33)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8.
34) 朱丹溪.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893. p.324.

35)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8.
36)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26.
37) 楊繼洲. 鍼灸大成. 長沙. 岳麓書社. 1993. p.655.
38)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

에 관계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III. 考察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王冰, 馬蒔, 張志聰 等 歷代 『內經』 註釋家들은 津液을 小便의 前驅物質로 認識하였으며, 氣化 또한 膀胱에 貯藏되었던 津液이 小便으로 變化하는 過程으로 認識하였다. 또한 『素問』 「脈要精微論」 「氣厥論」 「效論」 等과 『靈樞』 「營衛生會」 「九鍼論」 等에서도 膀胱에서 貯藏하는 津液과 膀胱에서 이루어지는 氣化를 小便排出과 관련된 것으로 認識하였다.

膀胱은 津液을 貯藏하는 腑로써 津液代謝와 관련이 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膀胱에서 이루어지는 氣化라는 過程을 단순히 津液을 變化시켜 小便으로 排出한다는 觀點에서만 이해한다면 膀胱氣化의 의미를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素問』 「經脈別論」에서 설명하고 있는 ‘飲入於胃 遊溢精氣 上輸於脾 脾氣散精 上歸於肺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이라는 것은 膀胱의 作用을 통해 津液이 다시 五臟으로 散布하는 過程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壽世保元』이나 『鍼灸大成』등에서도 膀胱의 氣化를 통해 津液이 全身으로 퍼지는 過程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壽世保元』 「膀胱經虛實病候」나 『鍼灸大成』 「足太陰脾經穴歌」에서 “膀胱에 이르러 [大小腸과 같이] 또 淸濁으로 나뉘니, 濁者는 小便으로 들어가고 淸者는 脾臟에 의해 五臟으로 散[上輸]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설명하는 膀胱氣化가 아니라 「經脈別論」에서 설명하는 膀胱氣化에 대하여 자세히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靈蘭秘典論』의 膀胱氣化이든 「經脈別論」의 膀胱氣化이든 두 가지 氣化는 모두 膀胱에서 이루어지는 氣化이므로, 身體에서 서로 다른 機能을 수행하는 膀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靈蘭秘典論』에서의 ‘氣化’라는 개념은 小便이라는 형태로의 津液 排出과 水分이라는 형태로의 津液 上輸 두 개념 모두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膀胱에서 이루어지는 氣化 가운데 小便으로 排出하는 過程을 ‘排出性 氣化’

라 하고, 脾氣에 의해 津液을 再吸收과정을 ‘再吸收性 氣化’라 하여 나누어 보았다. 膀胱의 氣化作用을 이와 같이 認識하면 前者는 膀胱津液을 小便으로 變化시켜 體外로 排出시키는 氣化作用으로, 後者는 膀胱津液을 五臟으로 上輸하는 氣化作用으로 認識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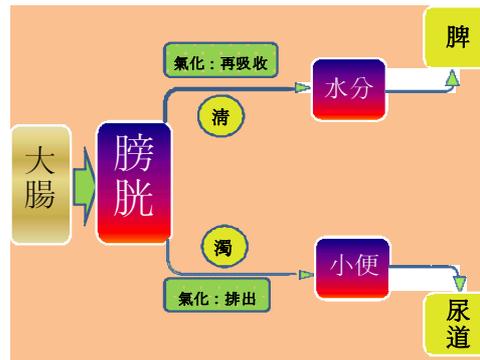


그림 1. 膀胱 津液의 氣化過程

이렇게 認識한다면 胃나 大腸, 小腸에서뿐만 아니라 膀胱에서도 分別淸濁 過程을 거치고, 膀胱에서 分別淸濁 過程을 거친 다음 다시 淸者는 體內로 再吸收 過程을 통해 脾로 上輸되고, 濁者는 排出過程을 통해 尿道를 따라 體外로 排泄되는 것을 同時에 說明할 수 있다. 즉, 膀胱에서 이루어지는 氣化作用은 津液을 小便으로 變化시켜 體外로 排出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水穀의 消化吸收 過程 중에 必要物質의 再吸收 過程에도 깊숙이 關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結論

膀胱의 機能은 『素問』 「靈蘭秘典論」에서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 한 것처럼 津液을 主管하는 것이다. 『素問』 「靈蘭秘典論」에 대한 諸家의 註를 보면 膀胱의 ‘津液’을 단지 小便의 前驅物質로 認識하고 있고, ‘氣化’에 관한 諸家의 註 또한 膀胱의 津液을 小便으로 變化시켜 體外로 排出하는 過程으로 認識하고 있다. 그러나 津液은 大小腸이나 다른 臟腑에 있어서 生理的으로 體內에 반드시 필요

한 物質로 認知되면서도, 유독 膀胱에서만은 體外로 排出되어야 하는 不必要 物質로 認知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즉, 膀胱의 機能이 그 津液을 氣化過程을 거쳐 小便으로 變化시키는 것에만 局限한 認識은 膀胱의 機能을 說明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膀胱도 다른 腑와 마찬가지로 必要物質을 再吸收하는 機能이라는 認識을 더할 때 膀胱津液과 氣化에 대한 膀胱의 機能을 明確하게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본 論文에서는 膀胱의 津液과 膀胱의 氣化過程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水穀의 消化吸收를 거쳐 生成된 津液은 膀胱에 모이기 때문에 膀胱은 津液의 腑라고 한다.
2. 大小腸에 清濁分別이 있는데 膀胱에서도 清濁分別過程이 이루어진다.
3. 膀胱의 清濁分別의 대상은 津液이며, 膀胱의 清濁分別을 표현하여 '氣化'라고 한다.
4. 膀胱에서 벌어지는 氣化는 다시 排出過程의 氣化와 再吸收過程의 氣化로 나뉜다. 排出過程의 氣化는 津液의 濁者를 小便의 形態로 體外排出시키고, 再吸收過程의 氣化는 津液의 清者를 水分의 形態로 脾에 再吸收된다.

지금까지 膀胱에 貯藏되었던 津液이 體內로 再吸收되고 小便으로 排出는 過程을 膀胱의 氣化라는 觀點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臟腑 活動을 통해 體內 必要物質을 再吸收하고 不必要物質을 排泄하는 機能에 關한 綜合的으로 認識하는 深度있는 研究가 進行되기를 바란다.

參考文獻

<논문>

1. 백상룡. 水液疾患의 病機 및 治療原則에 대한 비교고찰 -東醫寶鑑의 編制를 중심으로-. 韓國한의 學 연구원 논문집. 2003. 9(1). pp.65-79.
2. 오재근, 윤창열. 水穀의 運化와 배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4).

3. 류정아, 장우창, 정창현. 水穀의 人體內 代謝過程 說明모델.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4. 허준, 최승훈, 안규석. 津液代謝의 觀點에서 본 小便의 病理에 關한 文獻의 考察. 慶熙韓醫大論文集. 1989. 12(1).
5. 송지청, 금경수, 엄동명. 大小腸 泌別清濁에 關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2).

<단행본>

1. 黃帝內經素問校注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29, 309, 332, 498. pp.490-491.
2. 靈樞經校釋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62, 362, 409.
3.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8, 26.
4.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8.
5. 李東垣.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57, 80.
6.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219.
7. 張從政. 儒門事親. 河南. 河南科技出版社. 1984. p.141, 165.
8.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172, 1559.
9. 楊繼洲. 鍼灸大成. 長沙. 岳麓書社. 1993. p.655.
10. 윤창열,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603.
11.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懸吐·解釋. 黃帝內經素問 王水注.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186.
12.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78.
13. 靈樞研究集成刊行委員會. 靈樞研究集成 上卷. 대구. 청운인쇄. 2006. p.528.
14.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대구. 금성인쇄사. 2001. p.13.
15. 崔昇勳 譯. 難經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4. p.189.
16.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
17. 朱丹溪.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893.

p.30, 324.

18. 劉完素, 素問病機氣宜保命集. 河北.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11.